옛 상무대 곳곳에 남은 기억…소리로 되새긴 오월

5·18자유공원서 '콘크리트 보이스'
시민 30여명 영창·군사법정 등 탐방
구금·고문 상황 소리 재현…몰입↑
"직접 보고 들으니 훨씬 더 참혹해"



지난달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5·18자유공원에서 열린 장소 이동형 공연 '콘크리트 보이스3'에 참여한 시민들이 헤드셋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목소리와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연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구금되고 군사재판을 받았던 옛 상무대의 기억이 소리로 되살아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5·18자유공원. 헤드셋을 착용한 시민 30여명이 잔디밭에 모여 해설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은 창작그룹 모이즈(MOIZ)가 기획·제작한 장소 이동형 공연 '콘크리트 보이스3: 5·18 자유공원'을 체험하기 위해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따라 공원 곳곳을 걸으며 1980년 5월의 역사를 되짚었다.

지난 1952년 문을 연 육군 교육시설 상무대의 옛터 인근에 조성된 5·18자유공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연행된 시민들이 구금돼 조사와 군사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상무대가 1994년 장성으로 이전한 뒤 옛 시설이 철거됐고, 1999년 영창과 법정 등이 복원됐다.

관객들이 헤드셋을 착용한 채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던 중 '치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자신을 옛 상무대를 가리키던 '상무대표석'이라고 소개한 목소리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달라며 관객들을 공원 곳곳으로 이끌었다.

먼저 들어선 군사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들이 겪었던 일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이를 가로막는 재판장의 외침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군사법정은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된 시민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던 곳으로, 관객들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당한 재판 과정을 소리로 마주했다.

이후 찾은 영창은 중앙에서 수용실 내부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배치돼 있었다.

관객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헤드셋에서는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비좁은 공간에 갇혀 움직임을 통제받았던 구금자들의 고통을 재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으로 향한 헌병대 식당에서는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와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당시 임시 취조 공간으로 사용됐던 식당 안쪽 조리실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가득했던 웃음 소리는 온데간데없이 '뚝, 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점차 선명해지면서 당시 자행됐던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떠올리게 했다.

관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공간과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되짚으며 46년 전 이곳에 갇혔던 시민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홍수민(10)양은 "드라마 '닥터X'를 보고 5·18이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직접 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다"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알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콘크리트 보이스는 2022년 금남로·충장로 일대에서 5·18 사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처음 선보였으며, 2023년 옛 505보안부대를 거쳐 올해 5·18자유공원으로 무대를 옮겼다. /이연상 기자

북구 해외시장개척단, 베트남서 수출 판로 확대 나서

오늘부터 7일까지 호치민·하노이 방문
지역 중소기업 10개사 해외 진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선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신수정 북구청장과 광주테크노파크,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이 2일부터 7일까지 5박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마련됐다.

북구는 사업비 7천500만원을 투입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번역, 왕복 항공료의 70% 등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의료·미용·뷰티 등 생활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10개사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두 차례 수출 상담회와 바이어 현장 미팅에 참여해 신규 거래처 발굴과 수출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북구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창업교류진흥원 등 현지 경제·산업 관련 기관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값진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8개월 만에 종료

기체 잔해 등 추정물 1천832점 수습
사고 검증·피해자 애도권 보장 촉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이 8개월 만에 종료돼 총 1천832점의 유해 추정물이 수습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참사 초기 부실 수습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1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포국제공항에 보관 중인 사고기 잔해 수색을 끝으로 유해 재수색 작업이 마무리됐다.

재수색은 지난 2월 마대자루에 담긴 기체 잔해 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4월부터 무안공항 참사 현장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기체 잔해 분류 작업을 통해 115점, 무안공항 현장에서 1천711점, 김포공항에서 6점 등 총 1천832점의 유해 추정물이 수습됐으며, 신원 확인 작업은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8개월간 유가족들이 매일 현장을 지키며 유해를 직접 수습했고 정부와 협의해 새로운 유해 수습 매뉴얼을 만들어냈다"며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애도할 권리를 바로 세운 뜻깊은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명확한 조사 내용과 투명한 검증 과정이 빠진 채 종결 시한에만 맞춘 졸속 조사로 마무리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참사 초기 유해 방치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 쇄신과 사고조사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6:54 해짐 17:38 달뜸 —:— 달짐 11:36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0/18	장성	맑음	8/17
목포	맑음	12/17	보성	맑음	8/17
여수	맑음	13/18	함평	맑음	10/17
나주	맑음	8/18	순천	맑음	10/18
완도	맑음	12/19	영광	맑음	10/17
구례	맑음	8/17	진도	맑음	12/17
강진	맑음	11/18	흑산도	맑음	13/18
해남	맑음	10/18	고흥	맑음	11/19
광양	맑음	10/19	담양	맑음	8/17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5
	먼바다(북)	1.5-2.5	1.5-2.5
	먼바다(남)	1.5-2.5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0.5-1.5
	먼바다(동)	1.5-2.5	1.5-2.5
	먼바다(서)	1.5-2.5	1.0-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7:16 20:9	00:27 12:27	여수	02:15 15:21	08:21 22:08	녹동	02:52 16:12	09:32 23:18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감기 조심해요
세 차 70 세차하기 좋은날
빨 래 70 실외건조 좋아요
운 동 50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3일(화)	4일(수)	5일(목)
(5/18) 구름조금	(8/19) 구름조금	(12/18) 구름 비
6일(금)	7일(토)	8일(일)
(10/14) 맑음	(4/12) 맑음	(4/12) 맑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맑은물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옥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옥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곡성군 GOKSEONG COUNTY 광고문의 : 062)650-2099